

CTMS Brief 6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사”... 본 센터 코로나 돌봄 연구 보도에 공감 쏟아져

- 국제이주및포용사회센터×동아일보 기획기사, “코로나 1년, ‘육라벨’이 무너졌다”
- ‘돌봄 붕괴’ 현실을 엄마-아빠-조부모 측면에서 심층 조명
- 방역 목적의 시설 폐쇄, ‘일터’와 ‘학교’의 조화 고려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년이 넘어가니 번아웃(Burnout·소진)이 왔어요. 회사에도 애들한테도 죄책감이 들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네요.”

코로나19 1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우리네 엄마 아빠들이 지쳐 쓰러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녀 돌봄의 한 축인 학교 등 교육·보육 시설이 휴원, 휴교를 반복하며 부모의 돌봄 책임이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1면 ‘코로나 1년, 육아-라이프밸런스 ‘육라벨’이 무너졌다’ 중에서

지난 3월 본 센터는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을 주제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사태가 아동 돌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 0~12세 자녀를 둔 전국 부모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자녀 돌봄의 고충을 심층 조사한 첫 사례로, 앞으로 본 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본 센터는 아동 돌봄의 위기 실태를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동아일보와 함께 기획 기사를 추진했습니다.¹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와 아동 돌봄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돌봄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워킹맘 10명 중 2명, “코로나19로 사표 제출”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 내 아동 돌봄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엄마의 주중 평균 돌봄 시간이 전업주부는 14시간 37분, 맞벌이 주부는 5시간 18분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빠 역시 주중 평균 2,3시간씩 돌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가진 엄마의 절반(52.4%)이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빠 역시 3명 중 1명꼴(33.4%)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실제 설문에 응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20.2%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관렸습니다. ‘퇴사 엄마’의 절반(49.2%)이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증가한 돌봄 부담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평소보다 우울하다”(엄마 56.4%, 아빠 39.7%),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늘었다”(엄마 65.6%, 아빠 46.6%),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엄마 68.8%, 아빠 44.1%)고 호소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엄마 박지연(가명·44)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일·돌봄을 병행하다 지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인천에 사는 워킹맘 김경아 씨(44)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김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하는 입장에서 계속 애들만 챙길 수 없는 노릇이라 오후에 ‘학원 뽕뽕이’를 돌린다”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가 2배 이상 늘어 신체적 피로는 둘째 치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섯 살 쌍둥이를 둔 최주현(가명·36) 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남편과 매주 돌아가며 연차를 썼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휴원해도 등원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여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주중에 3일은 긴급돌봄 등원하고, 2일은 남편과 내가 연차를 내 아이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 부모의 73%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계속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기”(82%)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본 센터의 센터장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의 아이 돌봄 기능이 중단되며 가정이 붕괴에 내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CCTV 설치하고 아이 혼자 집에 뒀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자녀 돌봄의 무게는 특히 엄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이 문 닫았을 때 낮 시간에 누가 아이를 돌봤느냐는 질문에 전업주부의 89.2%, 맞벌이 주부의 32.7%가 ‘본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맞벌이 아빠는 11%, 외벌이 아빠는 3%만 자신이 아이를 돌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아빠의 돌봄 참여가 17.6%로 확실히 증가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엄마(52.4%)와는 한참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치되는 아이들이 적잖았습니다. 약 40%의 부모가 “최근 3개월 사이 아이들이 어른 없이 1시간 이상 있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아이들끼리 있었던 경우도

14.2%나 됐습니다. 서은미(가명) 씨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이를 집에 홀로 뒀다”면서 “혼자 등교 준비를 하고 오후에도 혼자 집에 있는 아이를 보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려고 있나 싫어 운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스트레스도 극심합니다. 전업주부의 돌봄 시간은 1일 평균 약 3시간씩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셋인 전업주부 주은혜(가명·45)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긴급돌봄이 맞벌이 부부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남편은 일에 바빠 육아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애들이 학원에 가 있을 때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로 징후’도 뚜렷

맞벌이 아빠 박정규(가명·46) 씨는 코로나 19 이후부터 오전 5시 일어나 출근합니다.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등교가 들쭉날쭉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안정훈(가명) 씨는 주 2,3일씩 재택근무를 하며 6세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 가사일을 많이 하지만 서로 힘들다보니 맞벌이하나는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빠들도 이번 돌봄 위기 상황에서 빠저린 고충을 겪었습니다. 직장인 아빠의 70.7%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2020년 12월 ~ 2021년 2월) 동안 일과 육아의 병행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맞벌이 아빠의 주중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8.4%, 외벌이 아빠도 19.5%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아빠들의 돌봄 스트레스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아빠들의 64.4%가 ‘코로나19로 평소보다 피곤하다’, 46.6%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늘었다’, 38.4%가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각각 엄마보다 10~20% 가량 낮았지만, 아빠들의 ‘피로 징후’도 뚜렷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가중으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A4

코로나 1년, 무너진 육라별

주 제111호 2021년 5월 19일 월요일 용어별보

아빠도 안팎 고통... 아내는 “당신만 버나” 상사는 “네가 애 보나”

‘자녀돌봄 애드반’ 역할한 아빠

“1년 가량 맞벌이 생활하면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주 2,3일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동안 딸을 돌보며,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 식사 준비와 자녀 돌봄을 맡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 식사 준비와 자녀 돌봄을 맡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 식사 준비와 자녀 돌봄을 맡습니다.”

맞벌이 아빠 육아시간 18% 늘어
“고과 병행 너무 힘들다”로
직장인 아빠 70% “가정에서 피곤”
아빠 64% “피곤”·47% “화” 늘어
엄마보다 보지만 부부갈등 수준
전반히 “남성 육아복지 확대”

달라. 특히 가정과 관련된, 특히는 회사에서
에어 노는 것 아니라서 놀이를 한다. 공간 관리
자 관리할 때 관련해서 애드반이 제정된
상황을 주 하는 것 아닌 스스로 스스로는
만든다.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맞이 아빠의 주중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18.4%, 외벌이 아빠도 19.5%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아빠 육아시간 18% 늘어
“고과 병행 너무 힘들다”로
직장인 아빠 70% “가정에서 피곤”
아빠 64% “피곤”·47% “화” 늘어
엄마보다 보지만 부부갈등 수준
전반히 “남성 육아복지 확대”

달라. 특히 가정과 관련된, 특히는 회사에서
에어 노는 것 아니라서 놀이를 한다. 공간 관리
자 관리할 때 관련해서 애드반이 제정된
상황을 주 하는 것 아닌 스스로 스스로는
만든다.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학업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아이들하고
사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젊은 아빠들 후폭에 이직까지

MZ세대 “육아도 공경해야 한다”
2030아빠 39%만 “육아는 엄마 몫”

“육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13년 차 직장인 강민호(가명)는 직장 생활
이후에 처음으로 1년 반 동안 육아를 맡게 되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아내의 출근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의 기획기사를 주도한 본 센터의 전지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실태를 드러낼수록 우리가 마련해야 할 정책의 내용이 명확해진다”며 “아빠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려면 돌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임직원을 위한 대체 인력을 마련하도록 각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남성 육아휴직이 공기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돌봄 및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이번 설문조사에서 아빠 및 조부모의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부담 증가가 무시 못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엄마가 가장 큰 고충을 겪는 당사자였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본 센터는 세 가지 정책적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²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할 때 **교육 및 보육 시설의 폐쇄는 사업장 폐쇄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사업장 폐쇄 없이 교육 및 보육 시설만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효과도 없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교나 어린이집보다는 사무실과 공장,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됐습니다.

둘째, **정부는 돌봄 및 돌봄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 및 보육시설 폐쇄는 일하는 부모, 특히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 특히 엄마가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 및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단지 노동 생산성 향상, 가족의 복지, 직간접적 고용 창출에만 기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근로자를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셋째,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각 조직 및 기관이 성 평등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각 직장에서도 성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평등 목표를 보장하고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동아일보 2021년 5월 15일 월요일 제3101호 6

코로나 1년, 무너진 육라벨

A3

‘돌봄돌봄’ 미래에 갇힌 엄마... 전업주부 육아 하루 8~11시간 급증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전업주부인 친구가 ‘돌봄돌봄’이라더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돌봄을 돌릴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돌봄이다. 돌봄이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돌봄돌봄’이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유교로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엄마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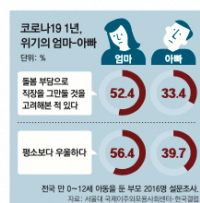
코로나 1년, 육아·라이프 밸런스 ‘육라벨’이 무너졌다



8월 2일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세 여아가 재택근무하는 엄마를 돕고 놀고 있다. 서울대 국제자녀와 포용사회센터에 따르면 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엄마의 80%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며 힘들었다고 답했다. 남양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직장맘 52% “돌봄 부담에 퇴사 고민”

서울대 포용사회센터 전국 부모 설문
거리두기에 보육시설 휴업 잦아
재택근로 돌봄 공백 해결했지만
육아·업무 사이 심심한 ‘번아웃’
위장망 20% 실제로 회사 그만뒀
“사회돌봄 중단” 가정봉고 위기



휴교를 반복하며 부모의 돌봄 책임이 절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국제자녀와 포용사회센터(CITMS)’가 한국갤럽과 함께 만 0~12세 자녀를 둔 전국 부모 2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엄마의 주중 평균 돌봄 시간이 전업주부는 14시간 37분, 맞벌이는 5시간 18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 역시 주중 평균 2.3시간씩 부담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직장을 가진 엄마는 52.4%가 “돌봄 부담에 회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빠 역시 3명 가운데 1명꼴(33.4%)로 회사를 관망하 하지 고민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직장인 엄마의 20.2%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관망하며, 이들 가운데 49.2%가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엄마 32.2%와 아빠의 19.6%는 “코로나19가 더 길어질 경우 휴직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녀 돌봄의 고충을 심층 조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CITMS 센터장은 은근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의 아이 돌봄 기능이 중단되며 가장이 붕괴에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이윤재 oldspon@donga.com·유재현 기자 A3-4면과 관련기사

Endnotes

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10/106836400/1>
2. Impacts of COVID-19 on Work-Family Balance in South Korea: Empirical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Ito Peng & Jiweon Jun (forthcoming)

글: 강지남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Communications Officer

본 자료 저자: 이윤태, 유채연 동아일보 기자, 전지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이토 팽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교수

디자인: 케이트 스몰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디자이너

<<알림>>

본 브리프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일보가 2021년 5월 10일 보도한 기사를 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CTMS Brief 6호



@ctmssnu

www.ctms.or.kr

ctms.snu@gmail.com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본 자료는 사전 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본 자료를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2동 307호